

#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H5형 저병원성 시 농장 발생

고병원성에 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조치 시행

겨울철로 접어들면서 고병원성 시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1일 전북 부안 오리농장에서 H5형

저병원성시A가 검출되면서 농장내 오리를 살처분하고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양계장에서는 저병원성 시로 확인되었는데 왜 살처분을 해야 하나에 의문이 들겠지만 H5저병원성 바이러스는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H9N3 저병원성과는 차원이 다르다.

H9N3는 백신을 허용하고 있으며 감염이 되더라도 살처분을 하지 않고 있지만 고병원성유전형인 H5형과 H7형 시의 경우 가금류에 유입되어 순환감염이 지속될 경우 고병원성으로 변이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병원성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사례는 유럽이나 캐나다 등에서 확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도 이를 따르고 있다. 전국에서 H5형 바이러스의 잦은 검출은 지난 부안과 같이 양계농장에 감염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농장관리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농장에 H5형 바이러스가 관찰되게 되면 고병원성 시 발생과 동일하게 발생농장 살처분 및 이동제한, 역학관련 농장·시설을 추적하여 소독·검사 등 차단방역 조치가 시행된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0월 4일 북해도의 큰부리까마귀 사체에서 고병원성 시혈청이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일본 전역에서 고병원성 시 바이러스가 8건 발견되면서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일본에도 아직 가금농장 발생은 없지만 전역에 고병원성시 바이러스가 유입된 것으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예를 볼 때 일본에서 발생된 이후 우리나라도 동일한 바이러스가 농장에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병원성 시 바이러스의 사정권에 들어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농가에서는 H5형 저병원성 시 발생시에도 고병원성에 준해 살처분과 이동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만큼 농가

피해가 없도록 차단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다.



## 한국가금학회 창립 50주년에 즈음하여

양계산업 미래 희망제시, 양계 단체들의 화합이 관건

지난 11월 16일 ‘한국가금학회 50년’을 축하하는 행사가 익산 웨스턴라이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가금산업의 50년을 돌아보고 향후 50년을 조망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가금학회를 창립하고, 한국가금협회(양계협회 전신) 창립, 본지(월간양계) 창간 등 양계업계의 선구자이신 **故 오봉국** 교수님의 일생도 함께 소개되면서 그 의미를 더해 주었다.

국내에 양계산업이 전업화되기 시작한 태동시기를 1960년으로 보고 있다. 1962년 (사)한국가금협회가 설립되어 **故 윤상원**, **故 이재근**, **故 오봉국** 회장님들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양계산업의 기초를 다져갔다. 이후 부화협회와 초생추감별협회도 생겨나 활동했지만 1973년 이들 단체를 통합하여 (사)대한양계협회가 탄생하였다. 그 당시 한국가금학회도 세계가금학회 한국지부를 구성하면서 가금에 대한 연구도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양계협회와 동반자로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1970년대 계란가격은 13.7원이었으며, 육계는 kg당 205원이었다. 그러던 것이 50년이 지난 현재는 계란은 개당 160원, 육계는 kg당 2,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소비량은 계란이 1인당 63개, 닭고기는 1인당 0.5kg이었던 것이 현재는 계란 280개, 닭고기 16kg을 소비할 정도로 크게 성장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양계산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아직 소비가 낮은 상태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계란소비와 닭고기 소비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계란은 99% 자급율을 보이고 있으며, 닭고기는 외식산업 등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병원성 **시** 발생, 닭고기 수입증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등 외부의 요인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성장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양계산업은 아직 성장세로 희망이 있는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양계협회를 등지고 빠져나간 단체들이 방향설정을 못하고 업계를 분열시키는데 앞장서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이들이 본회를 중심으로 다시 산업을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국내 양계산업의 희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양계**